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는 중국 동북지역

강승호(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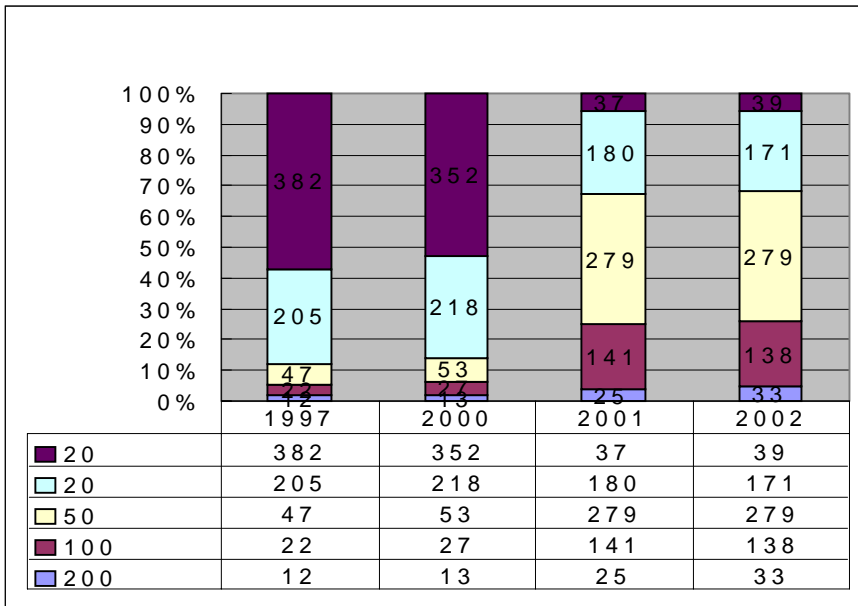
1. 확대되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수요

그동안 거대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것이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일부 지역 경제권(특히 연해지역)의 불균형 발전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상식이다. 연해지역(이하 화북, 화동, 화남 3 지역을 통칭)은 앞으로도 한동안 중국경제발전을 이끌 것이다. 80년대 초기 개방으로 인해 홍콩·마카오·대만 등 화교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자기업의 가공무역 위주의 발전 패턴으로 선두를 차지했던 화남(광둥, 하이난, 푸젠), 90년대 이후 상하이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재부상한 화동지역(상하이, 장수, 저장), 최근 중국경제의 정보화, 첨단산업화를 계기로 상하이를 추격하려는 북경 중심의 화북지역(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 이들 3대 경제권은 홍콩과의 경제 무역 강화 협정(CEPA)의 효과, 박람회 유치, 올림픽 유치 등 추가적 성장을 발생시킬 계기를 지니면서 선두다툼을 심화할 전망이어서 지역경제권의 3강 경쟁구도는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표-1>

<표-1> 권역별 향후 주요 성장 모멘텀

이들 3강의 성장 모멘텀 외에도 중국경제는 내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1년 부터는 종래의 소극적 도시화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을 광역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도시정부, 금융 및 상업 시설, 도시 주민 거주에 필요한 상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 투자수요를 야기하고 있다(<표-2>)

<표-2> 도시화 전략의 전환(인구규모별 도시수)



지역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된 서부 개발 전략은 30여년 이상 지속될 대역사이며 막대한 인프라 수요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 전체 에너지 자원의 60%를 차지하는 서부지역의 천연 가스를 4개 수송로를 통해 동부지역으로 수송하는 西氣東輸, 서부지역의 전력을 동부로 송전하는 西電東送, 장강지역 물줄기를 3개의 대형운하를 통해 물이 부족한 황하로 돌리는 南水北調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밖에도 도로, 철도 건설, 각종 수리 시설 등 급격한 토목건축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인프라 수요면에 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서부의 사업 기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기회: 동북지역

한편 10차 5개년 계획(2001~2005)을 통해 2001년부터 시멘트산업의 구조조정이 단행된 결과 중국에서도 현대적 생산방식인 신건식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미 선진적인 동부 연해지역의 고급시멘트는 과잉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북경, 상해, 천진 등에서는 시멘트 생산시설 확충이 금지되고 있다.

이처럼 연해지역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내지 내수 기회 여지가 그리 넓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시멘트 부족을 겪고 있는 서부지역의 막대한 수요에 기대를 걸만하다. 그러나 시멘트는 물류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상 수출의 장점이 비교적 크지 않다. 우리 업체가 중국 서부지역까지 수출하는 것은 중국의 동부업체들에 비해 비교우위가 없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서부 내륙지역 진출이 대안이다.

최근 동북개발이 발표되면서, 다수 조선족의 존재, 문화적 유사성, 지리적

근접성 등 우리에게 이점이 많은 동북지역경제도 근년 들어 활기를 띠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북이 중국의 제 4의 성장 축으로 부상이 점쳐짐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동북을 활용한 내륙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 내륙개발의 우선순위 변경: 서부개발에서 동북개발로

지'동북지역(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에 대한 중점 개발 방침이 정해졌다. 이후 작년 10월 말에는 중앙정부에 의해 610억 위안(약 9조 원)에 이르는 100대 프로젝트가 승인되는 등 중국정부의 동북지역개발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동북지역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97년부터 착수한 서부개발이 매우 거대한 장기계획이며, 따라서 일부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인프라 개발을 제외하고는 효과가 완만한 것을 보면, 이번 동북개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그러나 내륙의 낙후지역인 서부지역을 동북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지역은 연해지역과 인접한 랴오닝을 포함하고 있어, 세계경제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자기업의 진출여건도 훨씬 양호하다. 게다가 과거 30년대 이후 오랫동안 중공업지대로 역할하였던 잠재력이 있으며, 중국 정부가 한때 정채된 상하이 등 화동지역을 부흥시키는 데 성공한 바와 같이 동북지역의 옛 명성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신지도부가 동북지구 진흥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은 작년 5월말부터 원자바오, 황취, 리창춘, 쟁칭홍 등 지도자들이 잇따라 동북지구를 시찰한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4인이 시찰하였다는 점이 이례적인 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4개 중앙 직할시외에 제5의 직할시 후보로 랴오닝성의 2개 도시(선양, 따리엔)가 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중앙정부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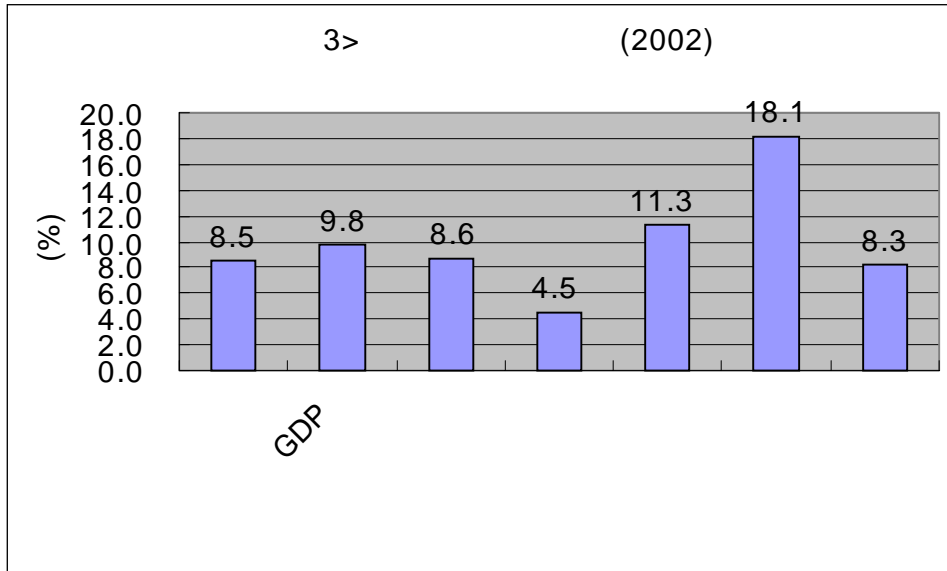
자금 면에서는 국채발행 등의 국가 자금이 동북지구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부개발에 투입되는 국가 자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공업 부흥의 시급성에 비춰보아 이제까지 중국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해 온 서부개발보다는 동북지역개발이 중요해 질 것이다.

4. 국유, 중공업 비중이 높은 동북문제

2002년 동북지역은 면적, 인구, 공업 총생산액, 고정투자에서 전국의 8.5% 수준을 점하며, GDP는 9.8%로 1인당 소득 수준은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과거부터 오랫동안 중국 내 중공업기지 역할을 해왔으나, 90년대 이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전체 도시 실업인구의 18.1%를 점하는 등, 동북지역의 경제상황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표-3>)

<표-3> 동북지역 주요 지표(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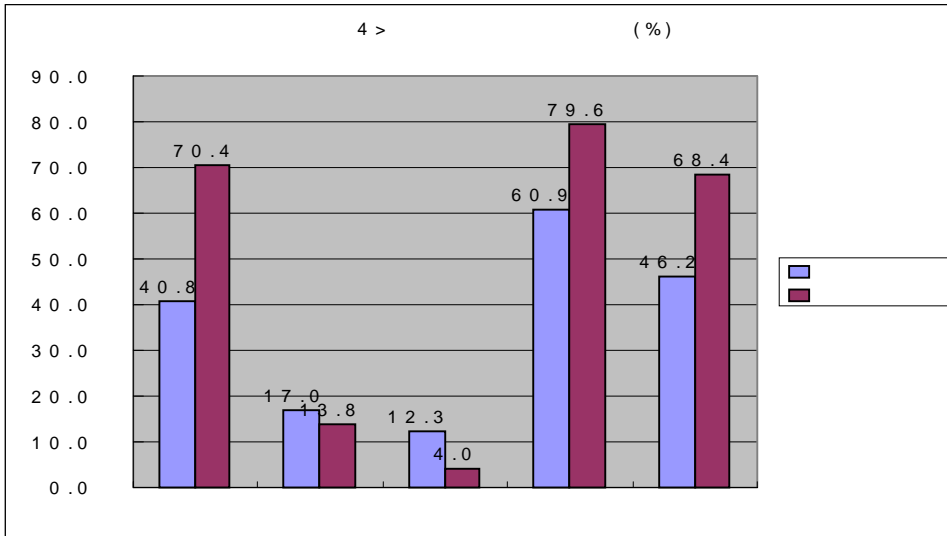


주: 각 지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78년 개혁개방 초기 동북의 공업 총생산액은 17%를 점했으며, 당시 랴오닝의 GDP는 광둥성의 2배였지만 현재는 반대로 광둥의 절반 수준으로 전락했다.

동북지역 공업은 국유기업 비중이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중공업 분야에 치중하며, 외자기업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홍콩·마카오·대만 등의 화교계 기업 비중도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보더라도 국유기업과 중공업 분야의 영향으로 대형기업 비중이 매우 높다(<도표-4>).

<표-4> 동북 공업의 특징



국유 비중이 높고, 민영화와 시장경제화가 뒤늦은 것이 체제문제라면, 중공업, 대형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산업구조 문제이다. 두 문제가 서로 맞물려 그 동안 동북지역의 상대적 낙후를 초래해 왔다. 연해지역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공업 분야의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을 위주로 일용생필품에서 내구재의 내수수요와 수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반면 동북지역은 국가의 기간산업인 중공업이 위주였기 때문에 민영화와 시장경제 발전이 더디었다. 이러한 동북지역의 문제에 대해 신지도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영화와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동북 중공업의 우위성을 되살려 낙후된 중공업기지를 새로운 중공업기지로 부활시킨다는 목표를 내놓은 것이다.

5. 중공업 부활은 중국 전체의 지속성장 필수 요건

중국 중앙정부가 최근 동북지역경제 부흥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의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경공업 주도발전 모델은 과거 계획경제 시기의 중공업 발전 모델에 대한 수정을 통해 그 동안 긍정적 효과를 지녔지만 현재는 자원이용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낳고 있다. 전력, 고급 철강, 화학원료, 에너지 부족 문제 등의 전반적인 부족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경공업 위주 공업화는 원료, 중간재 등 중공업제품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국산 보다는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중공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최근 중국 수출품의 구조가 첨단산업 등 생산우회도가 높은 자본집약적인 제품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의류와 식품 등 생필품에서 일부 내구재에 집중되어 오던 주민들의 소비패턴도 최근 들어 점차 이동전화, 컴

퓨터 등 IT산업 제품과 주택, 자동차 쪽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패턴변화에 따라 화학·철강 원료, 에너지 등 소재, 부품 등 중간재, 설비 등 자본재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이들의 수입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까지 중국은 해외에서 매년 700억 달러 상당의 플랜트 설비를 수입하고 있고 그 중 석유화학공업용 설비는 80%가 수입품이다.

동북지역의 진흥전략은 이와 같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공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여 대체하겠다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공업 부활이라는 동북 개발 목표는 단순한 지역격차 시정이라는 요구가 아닌 중국의 지속적인 고성장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이며, 중국의 공업화 단계는 그 동안의 경공업 위주 공업화에서 경·중공업의 동시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료, 제조장치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생산기반, 즉 '풀 세트형 산업기반'을 갖춘 동북지역 중공업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다. 주요 산업 중 동북지역이 중국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은 대형 화력설비가 33%, 수력발전설비 50%, 자동차 16%, 베이링 15%, 원유 40%, 석탄 12%, 철강 16%, 조선 30% 등이다.

앞으로 동북지역은 교통운수 설비업(자동차, 공작기계·전용기자재, 선박, 항공기), 공작기계 및 중대형 플랜트 설비제조업(디지털 공작기계, 석유화학 전용설비, 중형광산설비, 송배전·컨트롤 설비, 환경보호 전용설비, 가스터빈 등), 군사용 장비제조업(항공, 우주, 병기, 선박, 핵공업 등) 3대 업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처럼 동북지역 개발은 소득재분배·지역균형 발전적 성격이 강한 서부대 개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중국경제발전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비중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지역의 중공업 우위성, 지도자들의 정책 의지 이외에 계획의 현실성을 결정하는 관건은 자본이며, 특히 외자유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6. 동북의 투자 및 시장 인프라 이점

인적 자원 면에서 동북지역은 소득 및 임금이 연해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노동력의 질적 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투자면 인적 자원 인프라가 좋은 편이다. 권역별로 볼 경우 동북이 고졸이상 혹은 대졸이상 학력자 즉 고학력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연해지역 중에서도 수출지향적 산업이 일찍부터 발전하였고 소득, 임금 등이 높은 화남지역(광둥, 하이난, 푸젠)의 고학력 비율이 별로 높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표-5>).

	인구분포	GDP 분포	도시화율	고학력 비중		비고
				고졸이상	대졸이상	
동북	8.5	9.8	52.1	20.4	5.7	
화북	14.1	18.6	38.5	17.9	4.7	베이징 고졸 42, 대졸 17
화동	10.6	20.2	49.5	19	4.8	상하이 고졸 35, 대졸 11
화남	9.6	14.5	50.2	17	3.7	광둥 고졸 18, 대졸 3.9
황화중류	15.0	10.1	29.4	15.6	3.5	
장강중류	18.2	13.0	31.6	14.3	3.2	
서남	19.4	10.8	26.8	10.9	2.6	
서북	4.6	3.0	28.7	15.4	3.9	
전국	100.0	100.0	37	15.8	3.8	

주:

1. 인구, GDP는 전체 지역에서 해당지역이 점하는 비중
2. 도시화율, 고학력 비중은 해당 지역 인구중에서 비중
3. 학력인구는 6세이상 인구 중에서 비율

자료:

중국통계연감.

도시화율은 李善同(2002), 중국 권역별 경제사회발전 특징 분석,
KIEP·KITA주최 "중국 권역별 경제의 특성과 외국기업의 진출전략"

90년대 후반이후 점차 산업구조가 고도화 됨에 따라 화동(상하이, 장수, 저장)이 화남 지역을 추월하여 첨단산업 기지화하는 데 반해, 화남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기지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고학력 비율이 높은 동북이 화북과 함께 향후 기술·자본집약 산업화하는 데에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지역은 교통요충지역으로서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육로로 러시아, 몽고, 한반도에 이르는 주변 국가들과 연결된다는 점도 중요한 강점이다. 동북지역은 일본, 시베리아 철도와 몽고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통하는 허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이야 말로 해외로 통하는 육로를 지니지 못한 화남, 화동 지역에는 없는 동북지역의 우위성이다. 동북지구가 화남, 화동, 그리고 화북에 이어 제4의 성장축이 되는 과정에서는 화북과 동북이 서로 협력하는 발해경제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화동이나, 화남지역과는 다른 이점이라 할 수 있다. 작년 7월 '중화의 별'이라는 최고시속 320킬로미터에 이르는 고속전철이 시험운행을 하였다. 특급으로 9시간이상 걸리던 선양-베이징 구간을 시속 250킬로미터로 4시간 30분으로 단축함으로써 동북과 화북의 중심도시간 거리가 일일 생활권화 될 전망이다.

동북지역은 소비시장규모나 1인당 소비수준을 종합할 때 제 4의 경제권으

로 나타나 소비 시장면에서도 매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다. 물론 화북지역이 양 측면 모두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다. 화남은 소비수준 면에서 화북은 시장규모 면에서 비교적 유리한 시장환경을 지니고 있다. 화북지역에는 베이징, 톈진 2개 직할시가 포함됨에도 농촌인구규모가 매우 큰 산둥, 허베이 두 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낮고 소비수준이 낮은 편이다.

반면에 도시화율이 높은 동북지역은 시장규모에 비해서는 소비수준이 높은 편이다. 오히려 화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점은 소비시장으로서의 동북지역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점이며 내수시장을 위한 직접투자에도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7. 국내기업의 성공적 진출 방안: 동북을 활용한 단계적 진출전략과 M&A방식 활용

중국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시멘트 산업의 타겟(목표)시장은 궁극적으로는 서부 내륙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시멘트 산업 속성 상 생산과 수요지가 인접해야할 필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점차 내륙 수요지 쪽으로 사업확장을 꾀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륙 진출을 위해, 진출경험이 부족한 우리 시멘트 등 건설자재업체로서는 중국 현지경영의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중국의 내수 공략을 위한 적정한 실험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북경제의 부상을 주목해 볼만하다. 동북까지의 수출 물류 비용(따리엔, 선양까지)도 현재 서부에 비해 동부연해업체들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동북으로의 수출과 내수 기회를 노리면서 동시에 중기적으로 내륙 진출 훈련을 쌓아가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양, 따리엔을 거점으로 인근의 화북 대도시 공략으로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내몽고, 산서 등의 서북부 내륙 공략에 나서는 단계적 접근도 고려해 볼만 하다.

우리에게 있어 동북은 지리적 근접성, 조선족 동포의 존재로 인한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 장벽 등 접근성면에서 유리하다. 또 중국에의 접근성면에서 가장 유리한 수많은 화교계의 진출도 적은 편이므로 경쟁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시멘트 산업은 전자 산업 등과 같이 부품과 자재의 소싱이 원활한 산업클러스터 장점이 필요한 산업이 아님으로 동북지역을 생산입지로 선택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 진출, 직접투자 방식에 있어 단독투자와 현지기업과의 합자 등 여러 방식이 있다. 종래 외국기업의 합자 파트너가 되는 중국 기업은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고 그 특유의 행태로 인해 의사결정이 매우 경직적이고 더딘 점이 지적되어 왔다. 합자 파트너가 까다롭게 굴 경우 시장에 대한 시급한 의사결

정도 제한 받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외국기업이 독자경영을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동북지역은 국유기업 비중이 높아, 이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작년 말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해 동북지역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5년에 걸친 단중기 개혁 시간표가 발표되었다. 합병과 민영화 등에 의해 기업체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재편이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동북지역 국유기업 M&A를 위해 외자기업에 참여기회를 넓힐 전망이다. 따라서 M&A를 통해 시장 선점을 위한 영업개시일정을 앞당기거나, 기존 현지 국유기업의 유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 시장 공략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소비시장에서는 상품의 질 중시, 브랜드 이미지 선호 등 소비의 양극화 고급화 현상이 뚜렷하다. 시멘트와 같은 건설자재에서도 당국은 고강도와 내구성이 강한 고품질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제품, 저급제품은 중국에 진출하더라도 라이프 사이클을 별로 연장시킬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